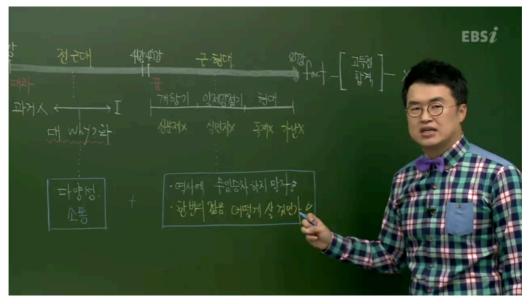
이틀 전(2023.10.25)에 쓴 글 지금 올려버리기~

< 그대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영화가 오늘 한국에서 개봉한다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오랜만에 내는 영화라, 2주인가 3주 전쯤 알게 된 이후로 보기만을 벼르고 있었다 감독 日 〈그대들, 어떻게 살 것인가〉라는 책이 주인공에게 있어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해서, 내일 영화 보기 전에 책도 한 번 읽어보고 가려 한다

근데 좀 뜬금없지만, 영화 제목에서 떠오르는 사람 한 명이 있었다 한국사 강사 최태성 선생님 예전에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삳 것인가!'라는 말을 강의에서 들은 기억이 났다

이 말 말고도 하나 더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서 오랜만에 EBSi에 들어갔다 정확히 최태성의 개정 고급 한국사 1강에 나온다 강의 탑재일 2013년인 거 보면 저 강의에서 들었던 말이 맞는 것 같다



출처: EBSi 최태성의 개정 고급 한국사 '01강. 역사는 왜 배우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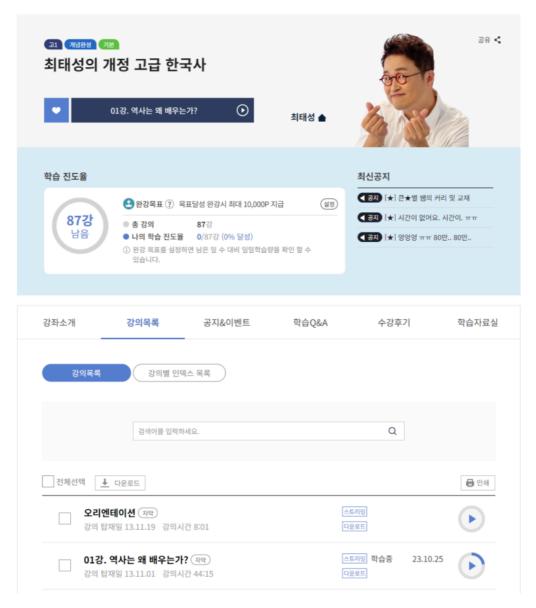
TMI:

이거 듣고 고등학생 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1급 땄던 걸로 기억한다

내가 기억력이 안 좋은 편인데, 시험 본 날 기억이 생생하다

친구들이랑 같이 시험 보러 가서 인근 중국집에서 밥 먹으며 채점하고, 잔반이랑 단무지로 얼굴 만들어서 사진도 찍었다.

대단히 특별하거나 인상 깊은 기억도 아닌 것 같은데 신기하네



아무든 찾았던 그 말은 바로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mark>맏자!'</mark> 다든 곳에서도 꾸준히 말씀하고 다니시는 내용인 듯



출처: 옥탑방의 문제아들 KBS 230823 방송

이왕 강의까지 찿아본 거, 이 말 나오기 전후 강의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특히나 역사, 한국사 공부의 필요성에 대해 의구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면 읽어보시라 이걸로 종결할 수 있지 않을까 감히 생각해 본다 나 보기 좋게 쓴다고 수정한 부분이 많으니, 1강 직접 들어보는 것도 추천한다 어차피 무료 강의다

역사를 공부해도 언젠가 배운 사실 그 자체는 분명 잋힌다 그 이후에도 남아있었으면 하는 것들에 대해 정리해 본다

● 한국사는 크게 전·근대와 근·현대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 시기별로 학습 포인트가 있다

1. 전·근대

과거의 사람들과 현재의 내가 끊임없이 대화해야 한다 그들의 행동에 '왜?'라고 물어보아야 한다 에드워드 카는 저서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란 현재와 과거 사이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했다

구석기 시대 돌도끼를 보고 지금의 문명과 비교하여 우습다고 생각할 것인가? 고자세가 되지 말자 역사를 통해 대화하는 연습을 하면, 현재의 사람들과도 대화가 용이해질 수 있다 이러한 연습 자체가 공감 능력을 키우는 일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해당 시기 역사 공부를 통해 다양성과 소통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

2. 근·현대

그 시대가 갖고 있는 꿈에 주목해야 한다 시대별로 과제, 사람들의 꿈이 있었다

개항기에는 신분제로부터의 해방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로부터의 해방 현대에는 독재, 가난으로부터의 해방

'우리 시대의 과제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 역사 공부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다짐을 해볼 수 있다
- 1. 역사에 무임승차하지 말자!
- 2. 한 번의 젊음. 어떻게 살 것인가!

선조들이 피와 땀으로 일궈낸 것들을 후손인 우리가 누리며 살고 있다 역사에게서 받은 많은 선물을 품고만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 무언가를 주거나 남길 수 있을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자

추가 자료

1.

https://m.blog.naver.com/ministar247/222183502068



최태성, 〈역사의 쓷모〉_역사에 무임승차하지… 올해 코로나 시국에 했던 거의 유일한 건설적인 활동…

m.blog.naver.com

어디서 이 말이 나왔나 찾아보다 최태성 선생님 책 리뷰 글 하나 찾았다 〈역사의 쓸모〉라는 책을 강의 중 언급하고 추천하셨다고 하는데, 한 번 읽어봐야겠다

2

https://youtu.be/RvMjD8Qmnws

세바시 영상인데 이거 정신 나간 영상이다 정확히 말하자면, 내 정신이 나가게 하는 영상이다 내게 있어 이 말은 극찬이다

주제와는 좀 다르지만 강연할 때 제스처, 목소리 톤, 높낮이 조절 이런 것 좀 배우고 싶다

잘하고 말고를 떠나 예전엔 나름 토론도 즐기고 약팔이 잘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말주변이 개박살이 난 것 같다

3.

https://www.lecturer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8544



2023년 '독도의 낟',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은 천명하기 위해 … [한국강사신문 한상형 기자] 오늘 10월 25일(수)은 대한제국칙령 제41호… www.lecturernews.com

마침 오늘이 독도의 날이더라 이것저것 우연이 맞물려서 내가 오늘 역사에 대해 리마인드하게 된 게 아닐까 한 번 끼워 맞춰본다